

나주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23~25일 둔치 시민공원에서
한우 등 특산물 적극 강조
홍어 50% 할인 이벤트 다채
막걸리 10여종 등 시음회

600년 전통을 이어온 삭힘의 미학, 남도 잔칫상 대표 음식인 숙성 홍어와 명품 나주 한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 축제가 이번 주 나주 영산포에서 펼쳐진다.

3일간 치러지는 축제를 통해 지역 미식 문화를 알리고 관광·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산포둔치 시민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1회 영산포 홍어·한우축제’가 열린다.

영산포 홍어 축제는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축제다. 올해부터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장행준)는 삭힘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숙성 홍어와 더불어 최상급 육질과 신선도를 자랑하는 나주산 소고기를 전국 미식가들에게 선보인다.

3일간 행사장 홍어 판매 부스에선 50% 할인된 가격에 숙성홍어를, 30%할인된 가격에 나주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근 홍어의 거리 상가를 방문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숙성 홍어를 맛볼 수 있다.

축제 현장인 영산강 둔치공원 인근엔 붉은 차마를 두른 꽃양귀비가 만개해 절경을 이루며 연일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붉은색 꽃양귀비와 꽃 사이사이를 수놓은 하얀 안개초가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나주시가 이번 홍어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14만㎡(약 4만2000평) 규모로 조성



했다. 주치는 영산강둔치 시민체육공원과 인근 주차장, 도로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홍어 주산지인 전라남도에서는 특 쏘는 알싸한 맛이 일품인 삭힘 홍어회를 주

로 먹는다. 숙성 홍어회에 찰진 돼지 수육과 곰 삭힌 목은지를 얹어 먹는 ‘홍어삼합’(三合), 구수한 김을 더하면 ‘홍어사합’(四合)의 풍미를 느껴볼 수 있다.

노안 정고집, 다도 참주가를 비롯해 숙성 홍어와 찰떡궁합인 남도 막걸리 10여종을 맛볼 수 있는 전시·시음 부스도 운영해 미식·애주가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회뿐만 아니라 찜, 전, 무침, 홍어 간을 끓인 애국, 막걸리를 곁든 홍탁 등 찜새를 자극하는 홍어 요리를 종류별로 느낄 수 있다.

축제 마지막날인 25일 밤에는 영산강을 수놓을 불꽃쇼도 예정되어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더 새로워진 나주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로 전국 미식가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3일간 숙성 홍어, 한우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재미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로 소중한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오백년의 흥겨움’ 법성포 단오제
영광군, 29일부터 6월1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은 오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오백년의 흥겨움’을 주제로 2025 영광법성포 단오제를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법성포 뉴타운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단오축제 중 하나로 강릉단오제, 자인단오제와 함께 대한민국 3대 단오제로 손꼽히고 있다.

법성포단오제는 음력 5월5일 단오절을 전후해 개최되며 조선시대 법성포 조창의 역사와 파시 문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민속 제전 형태를 띠게 됐다.

법성포단오제는 다른 지역 단오제와 비교해도 차별화되는 민간 주도의 축제다.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중심이 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칠산바다를 배경으로 법성포단오제의 전통과 정서를 담은 창작 가무극이 첫선을 보이며 ‘단오 어린이 우리옷 뽀내기대회’, ‘낙화놀이’,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청소년과 지역 학생들에게도 흥미롭고 뜻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행사로는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행사인 용왕제를 비롯해 선유놀이,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전통 민속·제전 행사와 기념식·단오제 씨름대회·청소년 페스티벌·학생 차예절 경연대회·민속놀이 경연대회·단심줄놀이·강강수월래·창포 머리감기 등 각종 체험 및 초청가수 공연까지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영광군과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는 현재 단오제의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줄 계획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장성군, 모범엽사 17명 구성

전라남도 장성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시작했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된 전문가 집단이다.

장성군은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모범엽사 17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장성군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교육도 진행했다. 지난 9일 장성경찰서·야생생물관리협회가 주관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준수사항, 총기 안전수칙,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예방수칙 등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유봉현 기자

여름철 대비 방역장비 무료 대여
함평군, 자율방역 활성화 일환

전라남도 함평군이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주민의 자율방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역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모기·파리 등 해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대비해 개인과 마을, 단체 등에 연무소독기, 휴대용살포기(UVL), 스팀·진공청소기 등 방역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방역 장비는 10월까지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법 안내와 함께 약품도 제공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장비와 방역 약품을 지원해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자율방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자체 방역반을 운영해 정기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주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60세 이상 무료 눈 검진 실시
장성군, 23일 북하면 문화센터

전라남도 장성군이 오는 23일 북하면 문화센터에서 ‘60세 이상 무료 눈 검진’을 실시한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한국실명예방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눈 검진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노년기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신분증을 지참해 북하면 문화센터를 찾으면 되고 진료 시간을 고려해 오후 2시30분에 진료 접수를 마감한다.

검사 항목은 시력, 안압, 굴절, 세극 등 현미경검사와 안저검사다. 검사 후에는 필요에 따라 돋보기와 안약을 제공한다.

저소득 주민에게서 백내장 등 안질환을 발견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 눈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연계·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나주시보건소직원이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무실을 찾아 금연 상담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보건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활동

전라남도 나주시보건소가 금연 의지는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은 금연 상담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금연상담과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니코틴 패치, 껌 등 금연보조제와 행동 강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6개월 단위로

금연에 성공할 시에는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된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관당 최소 2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방문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연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연과 함께 구강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도록 구강보건실에서는 직장인들에게 불화나트륨 0.2% 농도의 가글 용액을 배부했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희망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

한국수자원공사, 영광군 상수도 운영관리사업소 문 열어

고품질 수도서비스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분부는 21일 영광군 영광읍에서 ‘영광군 상수도 운영관리사업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상수도 운영관리사업소는 누수

탐사 복구,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유수율을 85% 수준으로 관리해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김강현 영광군 의회 의장,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으로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은 지난해 24개 기관, 마을 등을 대상으로 38회 운영됐으며 299명이 금연클리닉에 참여해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061-339-4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직장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조진용 기자